

고개 드는 노사갈등… 한국지엠 이어 줄줄이 파업 예고

완성차 업체 임단협 지연

한국지엠 5일간 1.2만대 생산 차질
강대강 대치 상황에 철수설 모락

르노삼성 노조 이미 쟁의권 확보
임단협 난항시 파업 가능성 ↑

기아차 노조 쟁대위 1차 회의 개최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한국지엠, 기아차, 르노삼성 등 완성차 업체들의 임단협이 지연되면서 자칫 '노조리스크'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사간 임단협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5일의 부분파업으로 1만2000여대의 생산 차질



한국지엠 부평공장.

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9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간 전반조와 후반조 근로자들이 각각 4시간씩 조업을 중단하는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생산손실만 1만 2000여대에 달하는 등 노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측은 투자계획 보류를

선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놨지만 노조는 10일 또 다시 쟁의 대책위원회를 열고 11일부터 13일까지 부분파업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시작한 임단협과 특근 거부도 이어간다.

만약 노조가 13일까지 부분파업을 진행할 경우 생산손실은 1만5000대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결국 노조가 파업을 장기화할 경우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트레일 블레이저의 미국 수출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는 물론 GM 본사 차원에서도 신차 생산 배정 변경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국지엠 노사가 '강대강' 대치 상황으로 치달자 한국지엠 철수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 400%에 6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협상 주기를 2년으로 늘리고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내년 월 2만 2000원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르노삼성도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 간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일 진행된 제5대 르노삼성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강성인 박종규 현 노조위원장이 연임됐다. 향후 임단협에 난항이 예견돼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 10월 중 양노동위원회가 임단협 관련 쟁의 조정

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쟁의 권을 확보했다. 향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도미니 시뇨라 르노삼성 사장은 "새로운 노조가 출범했고 서로 논의를 통해 잘 이끌어 나갈 것"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출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노사간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가는게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파업권을 확보해둔 기아차 노조는 지난 9일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쟁대위 1차 회의를 열고 회사를 압박했다.

노조는 쟁대위 소식지를 통해 "파업이 목표는 아니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노동조합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쟁의권을 통해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11~12일 임단협 10~11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네이버 웨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국내 모빌리티 기업 4개사 MOU 웹기술 기반 서비스 플랫폼 구축

네이버가 제공하는 웨일 브라우저가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과 협력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네이버 웨일은 드림에이스, 팀와이퍼, 카랑, 마지막삼십분과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각각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네이버 웨일은 웹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드림에이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과 방법론을 제공하고, 나마지 파트너 사들은 새롭게 구축되는 서비스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차량용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각자 제공하게 된다.

네이버 웨일의 김효 리더는 "이번 MOU는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양한



웨일 브라우저가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과 협력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카랑 박종관 대표, 팀와이퍼 문현구 대표, 네이버 웨일 김효 책임리더, 드림에이스 임진우 공동대표, 마지막삼십분 이종선 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

스타트업들의 차량용 O2O 서비스를 웨일 기반 통합 서비스 플랫폼에 옮겨, 양산 가능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O2O 서비스 회사 외 음악,

영화, 게임 등과 같은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기능부터 여행용 내비게이션과 주유 가격 비교까지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2514@

바로고, 교통 사망사고 예방 앞장

용인동부경찰서와 업무협약 교통안전 협조 체계 구축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바로고는 지난 10일 용인동부경찰서와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용인동부경찰서 이원일 서장(왼쪽), 바로고 김현성 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로고



바로고는 지난 10일 용인동부경찰서와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용인동부경찰서 이원일 서장(왼쪽), 바로고 김현성 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로고

/구서윤 기자

요기요 '늦으면 반값' 이벤트 확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자사의 차세대 배달 서비스 '요기요 익스프레스'의 서비스 지역 확장을 기념해 주문 후 배달 지연 시 반값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늦으면 반값' 이벤트를 이달까지 확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요기요 익스프레스 주문 시 배달 예상 시간을 기준으로 10분 이상 지연될 경우, 다음 주문 시 사용 가능한 최대 1만원 한도의 50%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해당 프로모션의 모든 비용은 요기요가 전액 부담한다.

같은 기간 요기요 첫 주문 고객이 요기요 익스프레스를 주문하면 1만원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구서윤 기자

스파크랩, 17일 '온라인 데모데이' 개최

별도의 온라인 접속 링크로 참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이 오는 17일 '제15기 온라인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스파크랩 데모데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온라인 접속 링크를 받아 참가할 수 있다.

데모데이는 스파크랩 액셀러레이팅을 거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스타트업 7곳▲비트원잡(BetweenJobs) ▲옥타코(Octatco) ▲로랩스(RawLabs) ▲서울번드(Seoul Bund) ▲샤크마켓(Shark Market) ▲리코(RECO) ▲세린컴퍼니(XELIN)의 발표와 전문가들의 패널 세션으로 구성했다. 그 밖에도 비트원잡, 샤크마켓, 세린컴퍼니 등이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스파크랩 15기 데모데이 행사 이미지. /스파크랩.

패널 세션은 '기술 분야의 여성 리더들'을 주제로 진행한다. 인스턴트 타투의 김남숙 대표, 노드 팔론 파데미 대표, 에드모도 수잔 김 대표가 연사로 참여한다. 엠씨 해머도 연사로 참여해 '기술, 인공지능(AI), 창업가 정신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15기 참여 기업과 기존 포트폴리오, 스타일테크 데모데이 참여 기업 등 30여 스타트업의 온라인 부스도 마련한다. 기업 관계자와의 실시간 채팅, 미팅 예약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데모데이 참관객과 기업의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KCC, '온동네 숲으로 마을 축제' 성료

환경개선 성과 지역주민과 공유

KCC가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우리마을에서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 '온(溫)동네 숲으로 마을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

11일 KCC에 따르면 이번 온(溫)동네 숲으로 마을 축제는 KCC가 올 한 해 서울시,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사업인 '온(溫)동네 숲으로'의 성과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축하하며 주민공동체 간 소통을 나누고자 마련된 행사로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가 열린 북가좌동 우리마을에서



지난 6일 열린 온동네 숲으로 마을 축제에서 주민들이 버스킹 공연을 즐기고 있다.

는 KCC의 친환경 퍼인트 '숲으로'로 칠해진 벽화를 배경 삼아 버스킹 공연과 시화전이 펼쳐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장 곳곳에서 밀집 확인을 진행했고, 지역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마을 축제를 즐겼다.

/김승호 기자 bada@